

이젠 현대전화로 논 물꼬 관리해요

해남군 '저탄소 벼 논물관리' 126ha 80여 농가 시범 실시 온실가스 감축 우수 모델 개발



해남군 계곡면 저탄소 농업 시범사업 대상지. <해남군 제공>

해남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현대전화로 논물 수위를 확인하고 논 물꼬를 열고 닫을 수 있어 스마트한 논물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해남군이 벼 논물관리 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전국 8개소,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해남에서 실시중이다. 해남군의 대표적인 친환경농업 단지인 계곡면 일원 126.6ha, 552필지 면적에서 80여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벼 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를 감축하기 위해 감축계수 개발과 논물관리기술 보급, 향후 탄소감축 우수 모델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저탄소 논물관리 기술은 논바닥에 물이 상시 차 있는 기존의 농법과 달리 관수와 배수를 적절히 지속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군은 이를 통해 탄소배출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용수 절약 등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범사업에는 스마트 기술이 적극 도입돼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논물을 관리해주는 '영상 자동물꼬 장치'가 도입된다. 통신을 통해 논물관리 상태를 데이터화해서 보관할 수 있는 '논물관리이행점검장비' 또한 설치돼 정확한 측정을 하게 된다.

영상 자동물꼬 장치는 농업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현대전화로 편리하게 논물 수위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물꼬를 여닫을 수 있어 논물관리에 드는 시간과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스마트한 논물관리를 통해 디지털 농업과 저탄소 농업을 실현할 수 있다.

군은 이와 관련해 최근 계곡면사무소에서 농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탄소 논물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관리를 위해 순천대학교 교수를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된 물관리협의체의 실무협의회도 열려 직접 시험포 현장에서의 논물관리 상황을 확인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전국 최대 경지면적과 친환경 인증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해남군이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관행농업의 한계인 환경성 문제를 해결 하고, 저탄소 농업으로 지속가능한 선진적인 친환경농업에 앞장서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자색옥수수로 퍼플섬 관광객 입맛 즐겁게

신안 반월·박지도 본격 수확



신안군은 퍼플섬의 명성에 걸맞게 반월·박지도에 자색옥수수를 재배하고 본격 수확을 시작했다. 자색옥수수(사진·블랙베리찰옥수수)는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맛과 수확, 속대까지 자색 안토시아닌 함량이 풍부하고 단맛이 강해 일반 옥수수보다 인기가 높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최우수관광마을로 선정된 안좌면 퍼플섬에서는 콜라비, 비트, 자색고구마 등 퍼플농산물을 재배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컬러마케팅을 지속해왔다. 자색옥수수는 올해 본격적으로 재배해 퍼플섬 현장에서 전옥수수로 판매를 시작하고 옥수수 티백, 스프 등 다양한 가공식품 재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퍼플섬을 비롯해 온통 보라색 꽃과 나무들로 이루어진 퍼플섬에 자색옥수수까지 더해

퍼플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눈을 비웃, 입까지 즐거움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퍼플농산물 재배 및 판매 확대를 위해 세소득원을 발굴하여 코로나19 장기화와 잦은 기상 재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여름밤 목포서 근대로의 시간 여행 펼쳐진다

문화재 야행 모던타임즈 소야행 29~30일 근대역사문화공간

여름밤, '시간을 걷는 도시' 목포에서 근대로의 시간 여행이 펼쳐진다.

목포시는 '2022 목포 문화재 야행 모던타임즈 소(小)야행'을 오는 29~30일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개최한다.

'2022 목포 문화재 야행 모던타임즈'는 5년 연속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금까지 가을에만 '대(大)야행'이라는 이름

으로 열렸지만 올해부터는 여름 휴가철에 맞춰 소(小)야행을 마련했다. 소야행은 시민과 관광객이 시원한 여름밤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소야행은 근대역사공간 곳곳에서 플라마켓(1897 포개비장터), 팝업카드, 도자기(머그컵) 만들기 등 공방체험과 추억의 전통놀이가 운영돼 어린이에게는 재미를, 어른에게는 향수를 제공한다.

또한 경동성당과 야외무대에서는 근대 재즈 콘서트, 가극 공연 '여름밤의 세레나데', 현악 4중

주, 정년 음악가 공연 등을 비롯해 목포 배경의 영화를 상영하는 '문화재 달빛극장' 등을 선보인다.

이 밖에 근대역사2관 벽면을 활용해 문화재 데생 위에 색을 입히는 '컬러링 아트 체험'과 근대역사거리 상주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우리동네 아트 갤러리'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이 여름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잊고 있었던 일상을 되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大)야행'은 오는 9월 23~25일 열린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목포해수청, 여름 휴가철 '해양안전의 날' 캠페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이 오는 29일까지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여름 휴가철 여객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한 '해양안전의 날'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여객선 이용객들의 해양안전 인식 개선을 위해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해양안전 체험관에 구명조끼, 구명뗏목 등을 비치해 여행객들이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는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이용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해양안전,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을 담은 안내문과 함께 해양안전 홍보물품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휴가철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에 대비해 여객선 및 터미널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통해 휴가기간 동안 여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한빛원전 '영광초 이음 오케스트라' 꿈나무 키운다

협약식 맺고 3000만원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가 어린이 오케스트라 꿈나무를 지원한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최근 영광초등학교에서 '영광초 이음 오케스트라'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빛원전은 오케스트라 연주용 악기 구입을 비롯해 지도강사 초빙, 오케스트라 공연 등에 쓰일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화웅 한빛원전 대외협력처장

은 "이번 지원이 학생들의 예술 활동 소양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선미 영광초 교장은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정서를 순화하고,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빛원전은 '영광초 이음 오케스트라' 지원 외에도 사업장 주변지역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비롯, 교육장학 사업에 지금까지 215억원을 지원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한빛원전, 영광초 이음 오케스트라 지원 협약식 모습. <한빛원전 제공>

영암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 추진

영암군이 주유소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인 유증기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저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중으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이상이

주유소의 경우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 기준 연간 인 관내 주유소로 대기업 직영주유소 및 농협, 공공기관 운영 주유소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시설 규모 등에 따라 토목·배관공사비를 제외한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40%로, 스탠드형 기준 노즐당 80만원씩 최대 8기까지 지원되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음창호씨가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